지역 소식통

부안군,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신청 접수

부안군은 소득은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인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도의 소득보다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65만원)이면서 재산 3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원(1회 지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수급자, 타 코로나 19피해 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세버스 기사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농·어·임업인의 경우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원받았더라도 이번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총 지급 금액 50만원 중 30만원을 뺀 나머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세대주가 28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하거나,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합동 점검

정읍시는 지난 13일 샘고을시장 등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해 소방, 전기, 가스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펼쳤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점포 밀집도가 높고, 좁은 길목 등으로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화재위험 요인의 사전 차단과 예기치 못한 화재의 발 빠른 진압을 위해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 관리실태와 소방 활동 장애 요인 제거 등을 집중 점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063-539-5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향누리 정읍' 알리기 총력

시, 다섯 가지 향기 알리는 홍보 UCC 공모전 개최… 총 상금 1100만원 · 6월 21까지 접수

민선 7기 정읍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향(井香)누리 향기공화국 정읍' 만들기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은 정읍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읍시가 내건 오향(五香)이 주축인 정책사업이다.

정읍의 향기를 뜻하는 정향(井香)과 온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누리를 합성해 정읍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정읍의 오향은 인향(人香), 성향(聲香), 주향(酒香), 미향(味香), 화향(花香) 등으로 정읍의 역사와 문화, 인물, 전통주 등을 아우르는 단어다.

즉,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를 바탕으로 정읍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 정체성을 높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취지다.

인향(人香)은 고운 최치원과 불우헌 정극인, 정읍 현감 이순신, 전봉준 장군, 독립운동가 백정기·박준승 등 지역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성향(聲香)은 수제천과 정읍사, 우도농악 등 지역의 전통 음악을 말하고, 주향(酒香)은 조선 3대 명주로 알려진 죽력고를 비롯해 막걸리와 복분자주 등 전통술을 뜻한다.

미향(味香)은 쌀과 한우, 쌍화차, 단풍미락 등 정읍을 대표하는 음식의 맛이고, 화향(花香)은 구절초와 벚꽃, 라벤더, 피향정 연꽃 등 지역의 특색있는 꽃을 가리킨다.

시는 이러한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발굴·확산해 관광자원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부터 6월 21까지 40일간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을 주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내용은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를 뜻하는 오향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소개하는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읍의 오향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문화콘텐츠 자원을 확보·보급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청소년부와 대학·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며, 나이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경우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를 통해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전자메일로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응모 작품은 4~5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개인 또는 팀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면서 타 공모전에 수상 경력이 없는 작품이어야 한다.

UCC 동영상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7월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총 25팀에 대해 총 1,1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정읍시청 성장전략실(063-539-692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생태계 교란생물 대대적 퇴치 나섰다

교란생물 퇴치단 구성… 변산 · 진서면 해안가 '가시박, 서양금혼초, 양미역취' 제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해안가 등에서 서식하며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계교란생물을 퇴치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등 총 2,000만원을 투입해 부안군의 생태계를 잘 아는 주민 11명으로 교란생물 퇴치단을 구성하고, 변산·진서면 해안가 일원에서 고유생물을 해치는 가시박, 서양금혼초, 양미역취의 서식지 약 2만 5,000㎡를 제거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1,200만원을 투입해 변산면 일대에서 가시박, 서양금혼초 등의 서식지 1만 2,500㎡를 제거한 것과 비교하면 제거 면적이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2009년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된 가시박은 북아메리카 원산의 한해살이 덩굴식물로서, 국내에는 수박의 병해충을 예방하고자 들어왔다. 그러나 주변 식물을 휘감아 고사시키고 번식력이 강한 특징으로 이내 전국적으로 퍼졌고 이로 인해 '식물 생태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린다.

마찬가지로 생태계 교란생물인 서양금혼초는 흔히 '개민들레'라고 불리며, 유럽 지중해가 원산이나 우리나라에 반입된 이후, 토양과 추위에 강하고 제초제를 살포해도 잘 죽지 않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양미역취는 뿌리에 독성이 있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며 뿌리가 강해 최대 100년 가량 생존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군은 가시박과 서양금혼초 등 생태계 교란생물이 집중 서식하고 있는 변산,진서 일대에서 대대적인 퇴치 작업을 펼쳐, 다양한 토종 생물 서식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시장, 칠보면 세류마을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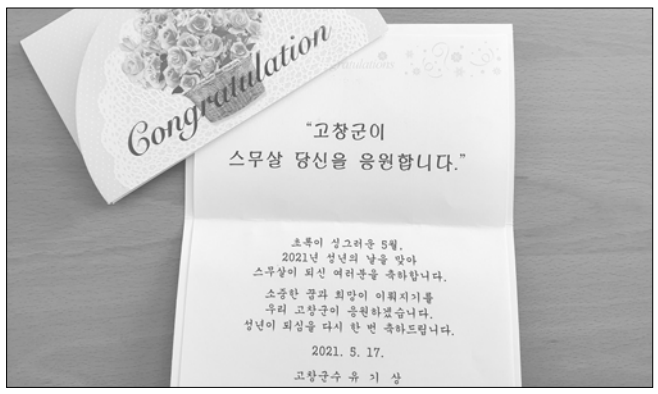
유진섭 시장이 지난 14일 칠보면 세류마을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유 시장은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주민쉼터에 방문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또 경관 개선을 위해 꽃잔디를 식재한 하천 주변을 둘러보며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애써준 주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진섭 시장은 "주민 주도로 추진된 마을 환경정비와 경관 조성을 통해 농촌 마을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주민 공동체 의식도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주도형 사업을 추진해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은 '제49회 성년의날(17일)'을 맞아 올해 만19세로 성년이 된 2002년생 470명에게 축하카드를 보냈다.

"스무살 청춘을 응원합니다"

유기상 고창군수, 지역 470명 청소년에게 축하카드로 격려

고창군이 올해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지난 14일 고창군은 '제49회 성년의 날(17일)'을 맞아 올해 만19세로 성년이 된 2002년생 470명에게 축하카드를 보냈다.

고창군은 "스무살이 되신 여러분을 축하하며, 소중한 꿈과 희망이 이뤄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는 유기상 군수의 축하와 격려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제작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했다.

고창군은 청소년들이 성년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권리를 행사하는 한편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감도 되돌아보게 해마다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축하 카드를 보내 격려해오고 있다.

성년의 날은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기 위해 1973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만20세에서 만19세로 연령이 낮춰졌다.

우리나라는 1974년과 1975년에 걸쳐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에 맞춰 5월6일로 바꾸었고,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농특산품, aT 첫 라이브방송서 '대박'

23만명 시청자 동시 접속 · 1시간 동안 1억2000만원 매출

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손잡고 고창 농특산품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열어 대박을 냈다.

지난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1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스튜디오에서 김춘진 aT사장, 천선미 부군수가 참석한 aT 스튜디오 개소식 기념 특별 판매방송을 열었다.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와 연계한 방송에선 높을고창쌀, 표고버섯, 복분자즙, 복분자주 등이 판매됐다. 23만명의 시청자가 동시 접속해 라이브방송에 참여했고, 1시간 동안 1억2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열띤 호응이 있었다.

특히 탄산이 들어간 고창 복분자주(빙탄복)는 젊은층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고창군 천선미 부군수는 "aT의 신규 스튜디오 개설을 축하하며 첫 라이브 방송을 고창군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우수한 고창 농특산품이 더욱 판매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